

# TDB경기동향조사(전국) - 2016년 3월 조사 -

## 악화경향이 안정된 국내경기

~ 소비세율 인상의 재연기를 포함하여 한층 강력한 경제대책이 필요 ~

(조사대상 2만3,342사, 유효회답 1만622사, 회답률 45.5%, 조사개시 2002년 5월)

### 조사결과 포인트

- 3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증가한 42.8이 되어 4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금융시장은 안정으로 추이하고 구인관련 업종이 견조하였으며 호쿠리쿠·훗카이도신칸센 효과나 연말수요도 더해져 국내경기는 악화경향이 주춤하였다. 향후의 경기는 소비세율 인상의 재연기를 포함하여 한층 강력한 경제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나, 경기회복을 향한 호재료가 부족하여 답보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 업계별로는 『건설』 『제조』 『도매』 『서비스』 등 7개 업계가 개선, 『농·임·수산』 등 2개 업계가 악화, 『운수·창고』가 보합되었다. 『서비스』는 음식점이나 광고관련이 호조로 8개월 만에 개선된 이외에 『건설』은 마이너스금리의 도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저하되어 목조 건축공사 등이 호조를 띠었다.
- 지역별로는 동일본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전월까지 2개월 연속 10개 지역 모두가 악화되었던 것이 일변하여 10개 지역 중 8개 지역이 개선, 1개 지역이 보합되었다. 유일하게 악화된 『토호쿠』는 4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어, 지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어도 본격적인 부흥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것을 각인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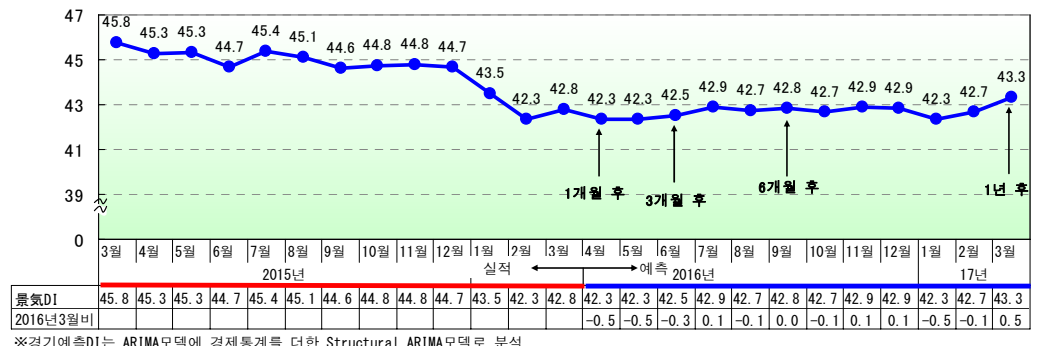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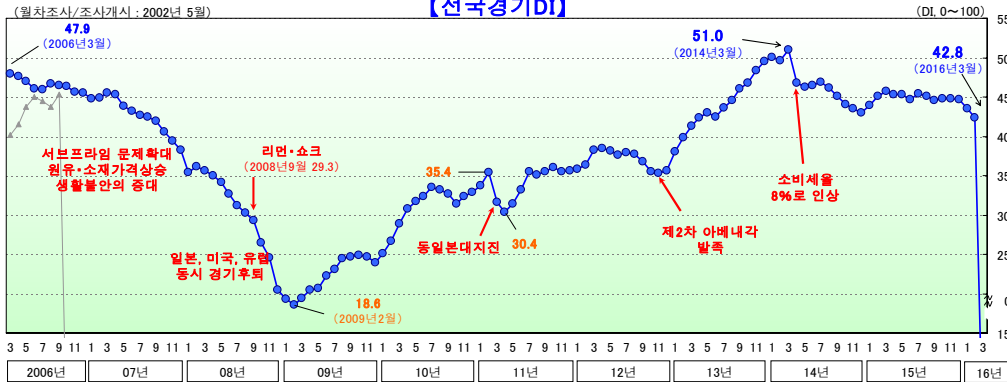
### <2016년 3월의 동향 : 악화경향이 주춤>

2016년 3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증가한 42.8이 되어 4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3월은 원유가격의 상승으로 구미(歐美)의 주식시세가 호전되어 닛케이 평균주거나 환율이 전월까지의 급격한 등락에 동반하는 시세변동에서 일변하여 안정된 움직임으로 추이하였다. 일본은행에 의한 마이너스금리 정책의 도입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저하되어 거주용 주택이 견조하였으며, 제조·도매의 관련업종으로 좋은영향이 파급되었다. 또한 유효구인배율이 25년만에 높은수준을 보이는 등 노동시장의 수급이 팽박받는 가운데, 인력과건이나 구인광고관련 등 『서비스』가 8개월만에 개선되었다. 지역별로는 2개월 연속으로 전 10개 지역이 악화되었던 상황에서 회복된 반면, 『토호쿠』는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가운데 부흥관련 공공공사가 잦아들고 있다. 국내경기는 악화경향이 주춤하였다.

### <향후의 전망 : 답보상태로 추이>

향후의 국내경기는 2017년 4월로 예정된 10%로 인상되는 소비세율의 행방에 좌우되겠다. 정부가 개최한 국제금융경제분석회의에서는 재연기를 지지하는 의견이 다수 나와, 아베수상에 의한 최종적인 결단이 나오기까지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훗카이도 신칸센의 개업이나 일본 방문 여행객의 증가에 따른 관광소비의 확대는 꾸준한 호재료이다. 해외경제에서는 미국이 2016년 금리인상을 종래의 4회에서 2회로 변경하여 불안감이 다소 줄어든 이외에,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향후 5년간의 성장률 목표를 6.5%이상으로 내리면서 중국경제는 고성장노선에서 궤도수정을 도모하였다. 향후의 경기는 회복을 향한 호재료의 부족으로 소비세율 인상의 재연기를 포함한 한층 강력한 경제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답보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전국경기DI】





**규모별 : 8개월 만에 모든 규모가 개선, 각 0.5포인트씩 증가**

· 「대기업」이 46.5(전월 대비 0.5포인트 증가), 「중소기업」이 41.8(동 0.5포인트 증가), 「소규모 기업」이 40.8(동 0.5포인트 증가)이 되어 각 0.5포인트씩 증가하였다. 1월과 2월에 2개월 연속으로 모든 규모가 악화되었으나 3월에는 8개월 만에 전 규모가 개선되었다. 「대기업」은 『금융』이 4개월 연속으로 2포인트 이상 악화되었으나 일미주식시장 반동의 영향으로 투자업을 중심으로 회복하며 2.8포인트 증가하는 등 7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은 6개 업계, 「소규모기업」은 7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15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년 1월	2월	3월	전월비
대기업	48.6	48.9	49.2	48.4	48.8	48.9	48.2	48.4	48.4	47.9	47.1	46.0	46.5	0.5
중소기업	45.0	44.3	44.3	43.6	44.5	44.1	43.6	43.7	43.7	43.8	42.5	41.3	41.8	0.5
(그 중, 소규모기업)	44.3	43.1	43.2	43.1	43.4	43.2	43.2	43.2	43.1	43.3	41.8	40.3	40.8	0.5
격차 (대기업-중소기업)	3.6	4.6	4.9	4.8	4.3	4.8	4.6	4.7	4.7	4.1	4.6	4.7	4.7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 부분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 부분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지역별 : 10개 지역 중 8개 지역이 개선, 지진 후 5년이 경과하였으나 부흥까지는 갈 길이 먼 『토호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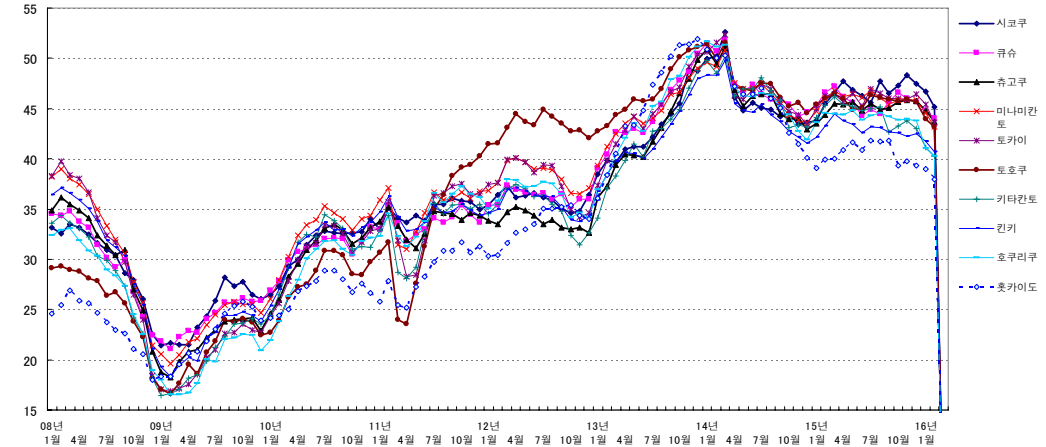
· 동일본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전월까지 2개월 연속으로 10개 지역 모두가 악화였던 것이 일변하여 3월에는 10개 지역 중 8개 지역이 개선, 1개 지역이 악화, 1개 지역이 보합되었다.

· 「**키타칸토**」(41.5)···전월 대비 1.2포인트 증가. 4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개선된 8개 지역 중 개선 폭이 유일하게 1포인트를 넘었다. 현 별로 나타내면, 자동차관련 산업의 호황으로 『제조』 『운수·창고』가 향상된 「군마」(2.5포인트 증가) 이외에, 적은 강설량과 스키투어버스 사고로 인한 대폭적인 하락으로부터의 회복과 6년에 한번 개최되는 축제의 열기가 영향을 끼쳐 『서비스』 등이 호조를 띤 「나가노」(2.1포인트 증가)가 대폭으로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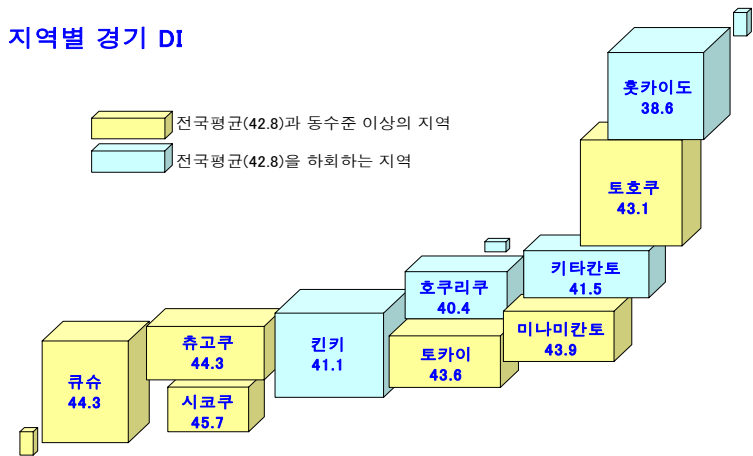
· 「**미나미칸토**」(43.9)···동 0.7포인트 증가. 5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주식시장의 반동으로 투자업 등의 『금융』이 2.5포인트, 마이너스금리의 영향을 바탕으로 대도시권의 상업토지의 가격상승 등이 기여한 『부동산』이 1.4포인트 증가하였다. 또한 수도고속도로의 대규모 보수작업 등 공공공사가 호조를 띤 『건설』(0.6포인트 증가) 이외에, 시스템의 위탁개발안건이 왕성한 『서비스』(0.5포인트 증가)에서도 체감경기가 개선되었다.

· 「**토호쿠**」(43.1)···동 0.1포인트 감소. 4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으며 단월로는 10개 지역 중 유일하게 악화되었다. 재해복구관련 공공공사가 잦아들고 있어 그 영향으로 『건설』이 1.2포인트 감소하여 4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전통어관·호텔」은 일부 지역의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뜬소문에 의한 피해로 아직까지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들리며, 체감경기가 10개 지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동일본대지진 이후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본격적인 부흥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또한 겨울철에는 적설량이 적었던 점이 제설공사나 관광객 수에 악영향을 끼쳐 치명타가 되었다. 『금융』은 지역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37.0으로 감소하였으며 10개 지역 중 유일하게 30포인트대가 되었다.

지역별 그래프(2008년 1월부터의 월별추이)



지역별 경기 DI



	15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년 1월	2월	3월	전월비
홋카이도	40.0	40.8	41.6	40.9	41.8	41.8	41.8	39.3	39.8	39.4	39.0	37.9	39.0	1.1
토호쿠	46.5	46.0	44.9	45.0	46.3	46.1	45.9	45.8	45.9	45.6	43.9	43.2	43.9	0.7
키타칸토	46.2	45.4	45.2	44.8	45.0	45.2	42.6	43.3	43.8	43.0	41.1	40.3	41.1	0.8
미나미칸토	46.8	46.2	46.5	46.1	46.8	46.1	45.4	45.8	45.8	45.8	44.6	43.2	44.6	1.4
호쿠리쿠	44.4	44.4	44.8	43.8	44.3	44.6	44.2	43.9	43.9	43.8	41.1	40.3	41.1	0.8
토호쿠	46.4	45.6	46.5	45.3	46.9	46.5	46.0	46.0	45.9	46.4	45.4	43.6	45.4	1.8
킨키	44.5	43.7	43.4	42.6	43.2	43.1	42.7	42.6	42.3	42.5	41.7	40.7	41.7	1.0
슈고쿠	45.5	45.4	45.6	44.8	45.5	44.9	45.0	45.6	45.8	45.8	44.8	43.7	44.8	1.1
시코쿠	46.6	47.7	46.9	46.3	45.6	47.7	46.5	47.3	48.3	47.5	46.7	45.1	46.7	1.6
큐슈	47.2	46.2	45.6	44.3	44.9	44.5	45.7	46.6	46.0	45.6	44.8	44.0	44.8	0.8
격차	7.2	6.9	5.3	5.4	5.1	5.9	4.7	8.0	8.5	8.1	7.7	7.2	7.7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 부분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 부분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